

WEBVTT

00:00:09.600 --> 00:00:12.054

여러분, 안녕하세요?
김종회입니다.

00:00:12.582 --> 00:00:20.466

이번 시간에는 조정래의 이름 있는
장편 소설 태백산맥에 대해서

00:00:20.491 --> 00:00:22.773

함께 살펴보겠습니다.

00:00:34.755 --> 00:00:37.495

박경리의 토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

00:00:37.757 --> 00:00:41.233

조정래의 태백산맥을 모르는 사람이
없습니다.

00:00:41.695 --> 00:00:49.220

그만큼 이 작품은 많은 화제를 뿌렸고
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고

00:00:49.747 --> 00:00:56.419

심지어 법정 투쟁까지 가기도 했던
여러 가지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

00:00:57.067 --> 00:00:58.529

태백산맥.

00:00:59.443 --> 00:01:06.817

한반도의 등뼈, 등줄기에 해당하는
그 산줄기를 말하는 거죠.

00:01:07.403 --> 00:01:12.638

그러니까 이 태백산맥은 단순히
산이다, 산맥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

00:01:13.128 --> 00:01:17.718

한국인이 살아온 그 삶의
굵은 줄기가 어떠하냐?

00:01:17.743 --> 00:01:20.088

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
하는 것을

00:01:20.113 --> 00:01:22.493

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.

00:01:23.517 --> 00:01:30.559

이 작품을 쓴 작가 조정래는
1943년 전라남도 승주군에 있는

00:01:30.584 --> 00:01:33.898

선암사라는 절에서 출생을 했습니다.

00:01:35.007 --> 00:01:41.680

그 부친은 대처승, 그러니까
속가 승려, 재가 승려.

00:01:42.657 --> 00:01:47.481

승려인데 가정을 가지고 있는
그런 경우였습니다.

00:01:48.778 --> 00:01:55.262

광주에서 중학교를 다니고
서울에서 보성고등학교를 거쳐서

00:01:55.287 --> 00:01:57.757

동국대 국문학과에서
공부를 했습니다.

00:01:57.782 --> 00:02:03.377

1970년에 누명이라고 하는 단편으로
등단을 했는데

00:02:03.621 --> 00:02:08.099

그러니까 20대 후반 스물일곱 정도
되었을 때죠.

00:02:08.848 --> 00:02:13.048

스물일곱의 젊은 작가 조정래
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

00:02:13.073 --> 00:02:16.536

얼마나 파릇파릇한 새싹이었겠어요?

00:02:17.194 --> 00:02:23.985

그 이후에 단편집 어떤 전설이나
20년을 비가 내리는 땅, 황토,

00:02:24.282 --> 00:02:28.290

한, 그 그들의 자리
그리고 중편집 유형의 땅,

00:02:28.377 --> 00:02:32.313

장편 소설 대장경, 불놀이
이런 작품들을 거쳐서

00:02:32.700 --> 00:02:38.419

대하소설 태백산맥, 아리랑,
한강 같은 작품을 출간했습니다.

00:02:41.458 --> 00:02:48.433

초기 조정래 소설에는
카투사라든지 기지촌 같은

00:02:48.458 --> 00:02:51.778

이런 좀 독특한 소재들이 등장해요.

00:02:51.956 --> 00:02:57.403

그리고 결국은 한국의 분단 문제로
그 생각을, 작품 세계를

00:02:57.428 --> 00:02:59.065

바꾸어 갑니다.

00:03:00.004 --> 00:03:05.431

전상국, 김원일, 윤홍길 같은
이런 작가들과 더불어서

00:03:05.456 --> 00:03:08.380
한국 문단의 중진으로 성장하면서

00:03:08.405 --> 00:03:12.450
1970년대부터 두각을 드러내기
시작합니다.

00:03:13.284 --> 00:03:16.791
1970년대의 분단 현실이라고
하는 것은

00:03:18.590 --> 00:03:24.063
한국의 분단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는
기조에서 출발하죠.

00:03:24.508 --> 00:03:32.224
그러니까 어렸을 때 전쟁을 겪었던
세대가 그 이야기를 체험을 담아서

00:03:32.249 --> 00:03:33.983
소설로 쓰는 거죠.

00:03:34.275 --> 00:03:44.070
그런가 하면 여러분, 1980년대 초
광주에서 일어났던 광주민주화운동

00:03:44.209 --> 00:03:48.409
그리고 1987년의 6월 항쟁

00:03:49.376 --> 00:03:56.954
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상징하는
1980년대는 이념 문제

00:03:57.423 --> 00:04:00.144
또는 운동 개념으로서의
문제 같은 것들이

00:04:00.169 --> 00:04:02.435
문학의 중심부로 진입해 있습니다.

00:04:02.460 --> 00:04:07.709
그래서 70년대에서부터 시작되는
분단 모순이라고 하는 것

00:04:07.734 --> 00:04:13.126
또 80년대 이후에 집중적으로
드러나기 시작하는

00:04:13.151 --> 00:04:16.071
객원 모순, 개청 모순 같은 것

00:04:16.096 --> 00:04:20.805
이런 것들이 70년대, 80년대를
이어가면서

00:04:21.333 --> 00:04:23.967
대하 장편 소설을 산출하게 하고

00:04:23.992 --> 00:04:27.911
좋은 작품을 많이 만날 수 있게
했습니다.

00:04:29.874 --> 00:04:33.634

조정래라는 작가는 분단을
극복해야 한다고 하는 용어가

00:04:33.659 --> 00:04:37.110

문학은 물론이고 사회 현실 속에서도

00:04:37.135 --> 00:04:40.253

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고
생각을 했고

00:04:40.669 --> 00:04:46.261

그 길을 찾아서 작품을 쓰겠다는
의지를 가졌던 작가죠.

00:04:47.185 --> 00:04:53.076

그래서 문학이 단순히 예술적
카테고리 안에,

00:04:53.101 --> 00:04:58.017

그 범주 안에 머물지 않고
사회 현실과 소통하고

00:04:58.042 --> 00:05:03.893

사회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장르여야
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

00:05:06.837 --> 00:05:10.040

조정래의 작품 세계가 획기적으로
달라진 것은

00:05:10.065 --> 00:05:12.948

1980년 5월로 볼 수 있습니다.

00:05:13.185 --> 00:05:19.278

이와 같은 시대상의 작품을 통해
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

00:05:19.303 --> 00:05:22.863

곧 태백산맥의 연재와 더불어서인데

00:05:23.405 --> 00:05:28.238

태백산맥 이전에 내놓은 중편 소설
시간의 그늘을 보면

00:05:29.297 --> 00:05:32.915

또는 그 앞에 불놀이라는 장편이라든지

00:05:32.943 --> 00:05:36.664

그 앞에 있는 중편 소설 유형의 땅
같은 것을 보면

00:05:37.936 --> 00:05:42.950

태백산맥 이전의 시기와
태백산맥 이후 시기의 조정래 작품이

00:05:42.975 --> 00:05:44.083

현격히 달라집니다.

00:05:44.108 --> 00:05:47.888

우선 분량에 있어서 태백산맥,
아리랑, 한강이

00:05:47.913 --> 00:05:49.629
대하 장편이라고 하는 점.

00:05:49.654 --> 00:05:55.467
그 이전에는 중단편 또는 장편,
1권 분량의 장편.

00:05:55.492 --> 00:05:57.553
이런 구분이 있죠.

00:06:00.061 --> 00:06:05.778
전반기 문학에 포함될 수 있는
50여 편의 작품들 가운데

00:06:05.973 --> 00:06:09.744
우리의 역사, 사회적 현실에 대한
관심을 갖지 않은 것.

00:06:09.769 --> 00:06:15.177
그러니까 인간의 내재적인 문제라든지
또는 예술 지향적인 문제라든지

00:06:15.202 --> 00:06:17.782
이런 작품들은 이 작가에게는
없습니다.

00:06:18.607 --> 00:06:22.807
경제 개발의 허구성,
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,

00:06:23.034 --> 00:06:29.056
근대화로 인한 농촌 붕괴와
도시 빈민의 참담한 조건.

00:06:29.745 --> 00:06:35.277
이런 시대적으로, 사회적으로
어려운 상황을

00:06:35.302 --> 00:06:38.114
소설을 통해서 드러냄으로써

00:06:38.139 --> 00:06:43.302
심지어는 화이트 칼라에 있어도
그것이 인간성을 부정하고

00:06:43.327 --> 00:06:47.527
노예 제도의 수락과
관련이 되어 있다는 시각을 보이면서

00:06:48.274 --> 00:06:54.203
매우 비판적이고 또는 진보적인
생각으로 작품을 쓰기 시작했죠.

00:06:54.456 --> 00:06:58.452
그런데 그 가운데는 언제나
분단 문제라고 하는 것이

00:06:58.477 --> 00:07:00.231

자리하고 있습니다.

00:07:03.544 --> 00:07:07.941

불놀이라고 하는 장편은
태백산맥 바로 직전에 쓰인 것인데

00:07:07.966 --> 00:07:14.517

이것은 4개의 중편이 모여서
하나의 장편을 이루는 구조입니다.

00:07:15.835 --> 00:07:20.928

6.25와 관련해서 인간의
개인적인 증오, 적개심

00:07:20.953 --> 00:07:25.908

이런 것이 이념적 대결 구도를 통해서
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할지라도

00:07:26.700 --> 00:07:28.685

이것이 화해의 길로
가야 하지 않느냐?

00:07:28.710 --> 00:07:32.308

그런데 너무도 아픈 과거의
상처들 때문에

00:07:32.333 --> 00:07:36.533

그 1세대들끼리의 화해가
어렵지 않느냐?

00:07:36.893 --> 00:07:42.053

그러니까 2세대, 전쟁 중의 가해자
또 전쟁 중의 피해자

00:07:42.078 --> 00:07:46.339

그 2세대들이 이룰때면 가해자는
일정한 별을 받아야 하고

00:07:46.364 --> 00:07:51.271

피해자는 위안을 받아야 하고 하는
이런 문제에 합의함으로써

00:07:53.415 --> 00:07:57.794

역사의 상황을 치유할 수 있다고 보는

00:07:58.037 --> 00:08:01.619

매우 논리적인 방식의 소설 작법이
그에게 있습니다.

00:08:01.644 --> 00:08:04.987

어떤 때는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
논리적이어서

00:08:05.347 --> 00:08:12.365

작가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
스스로 행동하는 힘을 부여하기보다

00:08:12.782 --> 00:08:17.697

뒤에서 보이지 않는 끈으로
조종하고 있는 것 같은

00:08:17.722 --> 00:08:20.391

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.

00:08:22.240 --> 00:08:29.775

이런 세계를 거치면서 태백산맥을
쓰기 시작했는데

00:08:29.800 --> 00:08:35.441

여러 논자들에 의하면 이 작가가
태백산맥을 쓰기 전에

00:08:35.466 --> 00:08:42.670

몇 가지 기본 입장을 갖추고자
했다고 평가를 합니다.

00:08:42.695 --> 00:08:46.231

첫째는 분단의 극복이라고 하는 것,

00:08:46.256 --> 00:08:49.670

분단 모순을 이기고
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

00:08:49.695 --> 00:08:53.484

이것이 역사 속에서만
있는 것이 아니라

00:08:53.509 --> 00:08:57.709

현실 속에서 어떤 구체적 방안을
찾아야 한다.

00:08:57.734 --> 00:08:59.712

소설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보여준다.

00:08:59.737 --> 00:09:08.488

둘째는 분단사의 숨은 진실을
밝혀 내는 과정에서 농민을 중심으로

00:09:08.513 --> 00:09:11.125

또 때로는 도시 빈민이 등장해서

00:09:11.150 --> 00:09:18.050

그 당시의 민중이 어떻게 그 역사의
중심부에 서 있었는가?

00:09:18.475 --> 00:09:23.273

역사의 주체일 수 있었는가 하는
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.

00:09:23.298 --> 00:09:26.499

이 얘기는 다분히 민중 사관,

00:09:26.524 --> 00:09:29.699

영주의 사관에서 민중 사관으로
이행되어 있는

00:09:29.724 --> 00:09:32.744

그런 소설적 관점이라고
할 수 있습니다.

00:09:33.388 --> 00:09:43.023

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사의 필연적

전개에 의해서 일어났던 사회주의 운동

00:09:43.421 --> 00:09:48.553

이것이 정당하게 자리매김되고
평가되어야 하고

00:09:48.578 --> 00:09:53.532

역사 속에서 그 가치가 확인되어야
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.

00:09:54.096 --> 00:09:58.976

그래서 태백산맥은 농민들이

00:09:59.640 --> 00:10:03.589

인공 치하가 끝나면서
지리산으로 들어가서

00:10:03.614 --> 00:10:06.860

좌익 파르티잔, 빨치산이
되었단 말이죠.

00:10:07.010 --> 00:10:12.570

그 빨치산이 되었을 때 그것이
어떤 배경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?

00:10:12.595 --> 00:10:18.351

예컨대 이병주라는 작가는
지리산이라고 하는 대하 장편을 통해서

00:10:18.376 --> 00:10:20.777

좌익 파르티잔의 이야기를

00:10:21.272 --> 00:10:24.576

인도주의, 인본주의적 관점에서
쓰고 있죠.

00:10:24.853 --> 00:10:30.706

그러나 조정래는 이것을
계급적 관점, 계층적 관점.

00:10:30.919 --> 00:10:38.834

그러니까 인민군들이 밀고 내려와서
그 보성 벌교 지방이 평야 지대니까

00:10:38.859 --> 00:10:43.642

오랜 소작농 제도의 역사가 있고

00:10:43.890 --> 00:10:49.317

그래서 지주와 소작농 사이에
형성되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

00:10:49.450 --> 00:10:53.159

갈등, 원한 관계 같은 게
있다는 말이죠.

00:10:53.184 --> 00:11:01.376

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땅을
농민들에게 거저 준다,

00:11:01.656 --> 00:11:06.742

공짜로 분배한다고 했을 때

지주와 소작농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.

00:11:06.767 --> 00:11:12.271
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실제로
전쟁 중에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

00:11:12.505 --> 00:11:18.697
죽창에 찔려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
이런 논의가 제기되는 거죠.

00:11:19.320 --> 00:11:23.200
그래서 인공 치하가 끝나고
인민군이 물러갔을 때

00:11:23.439 --> 00:11:29.194
이 소작농들이, 농민들이 갈 수 있는
곳은 지리산밖에 없다는 말이죠.

00:11:29.600 --> 00:11:35.552
지리산으로 들어간 이 빨치산들이
결국은 사상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

00:11:35.577 --> 00:11:39.665
계급의 문제, 먹고사는 문제와
관련돼 있었던 것이었다는

00:11:39.690 --> 00:11:42.728
전혀 새로운 경제적 관점을
제시했다고 하는 데

00:11:42.753 --> 00:11:45.168
이 작품의 의미가 큼니다.

00:11:45.771 --> 00:11:53.812
그래서 80년대 사회 변혁과
근대사의 모순점들 속에서

00:11:53.837 --> 00:11:57.463
특히 분단 문제와 관련해서
이 작품이 보여주는

00:11:57.488 --> 00:12:00.630
그런 새로운 시각의 전개라고
하는 것은

00:12:00.752 --> 00:12:04.008
한국 문학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
측면이 있고

00:12:04.169 --> 00:12:11.481
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
문학의 사상적 기반이 확장되고

00:12:11.506 --> 00:12:14.963
튼튼해졌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

00:12:15.455 --> 00:12:18.547
그렇지만 이 작품에 대한
부정적 시각도 많습니다.

00:12:18.788 --> 00:12:25.729

여기에 등장하는 김범우나 염상진,
심재모 같은 이런 인물 설정에 있어서

00:12:25.754 --> 00:12:31.028
이 인물들을 신비화하는 문제점이
노출된다, 이런 지적이 있고

00:12:31.313 --> 00:12:39.458
또 극단적으로는 태백산맥이
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한다고 지목되어서

00:12:39.575 --> 00:12:45.533
사법 기관에 고소장이 제출되는
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.

00:12:47.065 --> 00:12:57.759
그러니까 이 문학 작품을 가지고
어떤 사상적 문제에 결부시켜서

00:12:57.784 --> 00:13:04.107
논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
한편으로는 매우 문제가 심각한 것인데

00:13:04.634 --> 00:13:06.412
그와 같은 문제가 제기될 만큼

00:13:06.437 --> 00:13:10.637
이 작품이 굉장히 여러 걸음을
앞서 있는

00:13:11.169 --> 00:13:15.574
전진적인 지점을 보여주었다고
할 수 있는 것이죠.

00:13:15.862 --> 00:13:20.062
이 소설에는 거의 300명에 달하는
인물들이 등장합니다.

00:13:20.087 --> 00:13:22.232
그래서 그 당시에 존재할 수 있는

00:13:22.257 --> 00:13:26.191
사회의 모든 직업과 역할을
보여주고 있죠.

00:13:26.445 --> 00:13:31.293
태백산맥의 인물상은 크게
좌익분자들과 그 추종 세력

00:13:31.771 --> 00:13:35.669
또 중도적 입장에서 민간인의 살상을
줄여보고자 하는

00:13:35.694 --> 00:13:39.894
건실한 생각을 가진 중간층

00:13:39.919 --> 00:13:43.237
또 반란 세력을 평정하기 위한
토벌 세력

00:13:43.262 --> 00:13:45.866

이런 희비의 충돌들이 드러나고

00:13:45.891 --> 00:13:53.385
각 인물마다 각도를 달리해서
조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.

00:13:55.564 --> 00:13:59.764
어쨌든 조정래는 이 작품을 통해서
분단 상황의 모순 구조,

00:13:59.789 --> 00:14:04.323
특히 지리산으로 들어간
이 빨치산들의 문제를

00:14:04.554 --> 00:14:09.914
계급적인 시각의 경제적인 관점에
근거해서 해명을 했고

00:14:11.207 --> 00:14:15.407
그런 점에 있어서 이 소설이
단순히 분량이 길다,

00:14:15.432 --> 00:14:17.810
이야기가 재미있다는 것이 아니라

00:14:17.835 --> 00:14:22.496
한국 소설의 한 지평을
새롭게 넓혔다는 평가를

00:14:22.521 --> 00:14:24.415
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
00:14:26.628 --> 00:14:29.882
민족 내부에 있었던 이와 같은
여러 가지 모순들

00:14:29.907 --> 00:14:34.107
이것을 작품으로 보여준 태백산맥은

00:14:34.289 --> 00:14:36.704
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
읽히고 있습니다.

00:14:36.729 --> 00:14:43.493
우리는 이 작품을 읽음으로써
정말 것처럼 남북이 부딪힐 때

00:14:43.518 --> 00:14:47.174
또는 지주와 소작농이 부딪힐 때

00:14:48.291 --> 00:14:53.072
살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
그 비극적 역사 그것을 거쳐 왔고

00:14:53.343 --> 00:14:55.416
문제는 이 비극적 역사를 그 이후에

00:14:55.441 --> 00:14:57.603
어떻게 우리가 치유해
갈 수 있을 것인가?

00:14:57.628 --> 00:15:00.470

치유를 하자면 실상을
알아야 하는 거죠.

00:15:00.495 --> 00:15:04.371

사실적인 현장 근거를
알아야 하는 거죠.

00:15:04.396 --> 00:15:08.667

그래서 태백산맥을 읽고
그것을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

00:15:09.359 --> 00:15:16.666

우리 한국 내부에 있어서 사상성의
소통이나 조화 또는 화해,

00:15:16.691 --> 00:15:21.901

더 나아가서는 남북 간의 화해 문제를
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

00:15:21.926 --> 00:15:27.817

그런 소중한 소설 읽기의 경험을
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00:15:27.951 --> 00:15:32.151

여러분, 이 작품이
긴 소설이긴 합니다만

00:15:32.176 --> 00:15:35.031

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
어떨까요?

00:15:35.056 --> 00:15:37.953

굉장히 재미있습니다.